

택배 알바 새벽부터 '복직' ... 굴비 인기로 즐거운 '비명'

본보 기자들 택배·농산물 포장 체험...현장에서 본 추석 민심

코로나 경기침체로 생활비 벌이 나선 자영업자들 대거 몰려
비대면 추석에 김영란법 완화...영광굴비 전국서 주문 쇄도

'코로나, 경기침체, 실업, 거리두기, 집
콕, 비대면.'

10일 앞으로 다가온 올 추석의 키워드는
예년과 사뭇 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
기 침체와 실업난이 맞물리면서 택배 물류
센터에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 '투잡' 아르
바이트생들이 북적였다. 가족 안전을 위해
몸은 멀리 있지만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로 '선물세트' 물량이 부족 늘었다. 공
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액도 올라 불경기에 신음하는 농·어민들도
모처럼 손길이 바빠졌다.

추석을 앞둔 택배 현장과 수산물 판매점
등에서 선물을 나르고 포장하면서 지역민
들이 전하는 추석 분위기와 지역 경제상황
등을 들었다.

◇'쿠팡 플렉스' 택배 알바 직접 해보니-
지난 18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임
동 새벽배송을 앞둔 '쿠팡플렉스' 광주 2점
프는 배송 물품과 일일 배송 아르바이트를
뛰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쿠
팡 플렉스'는 일반인이 자기 차량으로 배
달하는 아르바이트로, 원하는 시간을 골라
배송을 하고 건당 인건비를 받는 구조다.
본업과 병행할 수 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을 중심으
로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족 늘었다. 최
근엔 지원자가 늘면서 건당 배송비가 줄었
다. 쿠팡플렉스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건당 수수료는 2000~3000원에 달했는데,
현재는 박스 1000원, 비닐 850원 수준이
다. 그래도 경기 침체에 "없는 것보다 낫다"
며 아르바이트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날도 새벽비가 내리는데도, 배달 아르
바이트를 뛰려는 차량들이 긴 줄을 만들었
다. 한참을 기다려 물류창고에 들어가자
이동식 적재함마다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
여있었고 배달 인력들은 자신의 배달 물량
을 확인, 실어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
다.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몰리면서 창고
에는 배송 물량이 넘쳐났다.

배달 인력들은 주간배송(오전10시-밤
9시), 야간배송(밤11시-다음날 오전7
시), 새벽배송(새벽 3시- 오전 7시) 등을
선택해 일을 할 수 있다.

새벽배송은 오전 7시까지 모든 배송을
끝내야 하는 만큼 더 바쁘지만 건당 배
송비가 많다. 그만큼 지원자도 많다.

이날도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이뤄지는
새벽 배송을 하겠다고 지원한 아르바이트

생들만 30여 명.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배
달 물량이 있는 곳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
시키고 분류해 실어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
였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8개월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 광주
와 전남·북 지역의 응답자 중 실적 경험
(12.4%), 권고사직(25%), 비자발적 해고
(25%) 등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번거로운
채용 절차가 없는 '플렉스 배송'의 장점
(?) 탓에 실적·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도 젊은 부
부, '투잡' 뛰는 직장인, 경기 침체로 하던
일 폐업하고 뛰어난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최대 100개의 물량을 새벽 7시까지 배
송해야 하는 만큼 물류창고에서 시간을 허
투로 보낼 수가 없다.

"어디로 가세요", "무슨 일 하세요" 등을
물었다가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라는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다.

뛰어난 지 3개월 가장 됐다는 김모
(26)씨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투잡'으로
주말과 새벽 배송일을 한다"고 했다.

처음 도전한다는 한모(33)씨는 "두달
전까지 카페를 운영했다가 최근 코로나로
손님이 딱 끊겨 폐업하고 오늘 처음 왔다"
면서 "추석 앞두고 언제까지 놓고 있을 순
없이 왔는데,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열심
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정병호 기자가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상자를 들고 현관을 오르고 있다(왼쪽). 지난 19일 영광
군 흥농읍의 굴비판매 업체인 '다향굴비' 직원들이 포장을 마친 굴비를 냉동고에 넣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자도 17개의 배송 물량을 신고 움직였
다. 17개 밖에 안되는데, 승용차 트렁크와
뒷좌석이 가득 찼다. 물량을 하나 배송할 때
마다 사진을 찍어 '배송완료'했음을 알리고
바쁘게 움직였다. 7시까지 배송을 끝내야 해
최단거리로 배송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
다. 초보자라 회사측이 지근거리 배송 물량
을 배정, 2시간 만인 새벽 6시에 완료했다.
물류센터에서 만난 김모(31)씨는 "새벽

2시에 나와 7시까지 많은 때는 75개 정도
물량을 나른다"며 "단가가 떨어져도 일거
리가 없어서 못하는 요즘엔 감지덕지"라며
"익숙해지면 벌이가 훨씬 나아진다"고 말
했다.

◇'영광굴비' 포장해봤더니=대표적인
명절 선물세트인 '영광굴비', 추석을 앞두
고 판매 업체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올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끊이지

않았던 관광버스로 운영을 멈췄고 굴비축
제(4월 17일-19일) 등 소비 촉진 축제도
취소됐다. 매출 감소로 시름에 잠겼던 굴
비 판매 상인들 얼굴에는 모처럼 '비대면'
추석 때문에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이가
늘면서 모처럼 웃음이 가득했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17일 이후 지역감염 '0' ... 공공시설·공연장·영화관·미술관 등 운영 재개

광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
는 27일까지 1주일 간 연장했다. 다만, 그
동안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
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14종
의 집합금지 시설 중 '생활체육 동호회 집
단체육활동'을 제외한13종을 집합 제한
으로 완화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4
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
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 북구의 방역중점
관리지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민관공동대책
위 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브리핑을 통
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
지 않은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
중하기 때문이다"면서 "전국적으로 코로
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감염경
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역시 줄어들지 않
고 있는데, 무증상자가 절반을 넘고 있
다"고 2단계 연장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 관
리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험도가 높
은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한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된

나주 혁신도시 유례없는 부영 특례 ▶6면
광주FC, 창단 첫 K리그1 A그룹 진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다. 다만, 시설별로 시설 특성에 맞는 영업
시간 제한, 인원 수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이
추가되며,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하도
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시설은 현재 26종에
서 39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대중컨벤션
센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등 공공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박
물관, 미술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도 27일까지 무
관중으로 진행한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다만, 수
능을 앞둔 고 3은 매일 정상 등교한다.

한편, 광주에서는 17일 이후에 지역감
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20일
해외유입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부동산 논란' 김홍걸 의원 제명 지역민들 "아버지 DJ 이름 더럽혀" 씩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을 전
격 제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
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격"
이라며 씩씩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4면>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긴급 소집
한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
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
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

위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
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
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
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직 신분은 유지된다.

지난 총선 당시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
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
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
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일으켰다. 또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
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www.jnmall.kr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전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국 1위



전남은
국내유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



전남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1번지



'남도장터'는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한곳에서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